

주님께 불명예가 되는 것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요 11:7-8).

: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경우 예수님께 불명예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만이 주님께 불명예가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따르기보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 거야’라는 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생각이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제안이 올 때를 압니다. 주님의 제안은 매우 조용하면서도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제안에 대해 내가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내 속에서 따지면 의심과 다툼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요소들을 끌어들이면서 결국 그 제안을 밀어내는 잘못된 결론에 이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교리에 충성합니다.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교리에 충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나의 지식을 신앙의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마음을 다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발걸음을 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뭔가 분명히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마음속에서 논쟁합니까? 아무 미련 없이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계속 당신이 따진다면 그것은 주님께 영예가 되는 것을 내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주님께서는 불명예가 됩니다. 당신은 그분의 말씀에 충성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교리에 빠져 타협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요²⁵.

주님께 불명예가 되는 것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요 11:7-8)

1. 분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순종이 주님께 해가 되고, 불순종이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막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 때 예수님의 길은 유대인들이 가로막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의 기적에 환호하며 예수님께 나왔던 우호적인 군중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틈으로 다시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막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래는 “Isn’t there some misunderstanding?”(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주제에 아주 적절한 제목일 것 같습니다. 왜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길을 막고 있나요? 그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께 불명예’가 된다면 우리도 모두 그 길을 막지 않겠습니까? 오늘 챔버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의 사역에서도 이런 경험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대로 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경우 예수님께 불명예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챔버스는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순종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불명예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님께 불순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순종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제안하실 때, 내 안에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가지기 시작하면 의심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데, 주님의 제안을 밀어내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의 이해’를 기준으로 할 때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기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대한 ‘관념’ 혹은 ‘교리’에 집착합니다.

“자신의 교리에 충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나의 지식을 신앙의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마음을 다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저함은 자신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해와 분명한 지식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저함과 논쟁으로 이어지는 결론이란 결코 주님을 명예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저한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자신’이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는 미련 없이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날 우리 신앙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주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무 많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 ❶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일 뿐입니다.
- ❷ 믿음이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목상 질문 오늘 당신의 주저함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나의 이해’만을 바라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목상레시피 | 사무엘하 6:1-15 + 요한복음 11:7-8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1, 3-5절)

그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7절)

다윗은 이 일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

오벤에돔의 집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절)

다시 궤를 옮길 때 다윗은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13절)

너희는 알아두어라, 주께서 하나님의심을.

우리가 그분을 만든 것이 아니요,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이 보살피시는 양 떼.

(시편100:3, 메시지성경)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3절)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삼하5:3).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 다윗은 많은 인원과 악기들을 동원했고 새 마차를 준비했다. 그러나 언약궤를 이동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레위인들이 직접 어깨 위로 메는 것이었다(7:8-9, 수3:1-6).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불들었더니(6절)

웃사는 하나님의 궤를 자의적으로 통제하려 한다. 웃사는 ‘하나님’을 보호하려 했다. 하나님은 ‘오벤에돔’의 집을 보호하시고 복을 내리셨다.

다윗이 분하여(8절)

‘분하다(히, 하르)’는 화가 나서 마음이 상한 것을 가리킨다. 다윗은 죄선과 선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